



한국판 심리적 마인드 검사 타당화 연구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alanced Index of Psychological Mindedness

문기범, 김현진, 김소정, 이채린, 고영건† elip@korea.ac.kr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배경 및 목적

심리적 마인드 (Psychological Mindedness)

- 심리적 마인드(Psychological Mindedness)는 자신 또는 타인의 사고나 감정 그리고 행동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과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환자가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치료를 받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입되었고(Appelbaum, 1973; McCallum & Piper, 1996), 이후 수 십 년 동안, 역동 치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자의 심리적 변인을 나타내는 임상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Nyklícek & Denollet, 2009). 심리적 마인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 마인드 예측력에 주목해왔다. 심리적 마인드를 갖춘 환자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더 큰 통찰을 얻으며(Guy & Brown, 1992; Nyklícek, Majoor, & Schalken, 2010) 치료에 대해 더 많이 기대하고(Beitel et al., 2009)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 R. Conte, Ratto, & Karasu, 1996).
- Nyklícek와 Denollet는 심리적 마인드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을 참고하여 흥미와 통찰의 두 요인으로 이루어진 14문항의 BIPM(Balanced index of psychological mindedness)을 개발했다. BIPM은 우수한 내적 일치도(Chronbach's α , $\alpha_{\text{흥미}} = .85$, $\alpha_{\text{통찰}} = .76$)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_{\text{흥미}} = .76$, $r_{\text{통찰}} = .71$), 구성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인드는 국내의 임상심리학과 정신건강전문가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평가도구의 부재로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BIPM의 한국어 번안판인 K-BIPM을 타당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심리적 마인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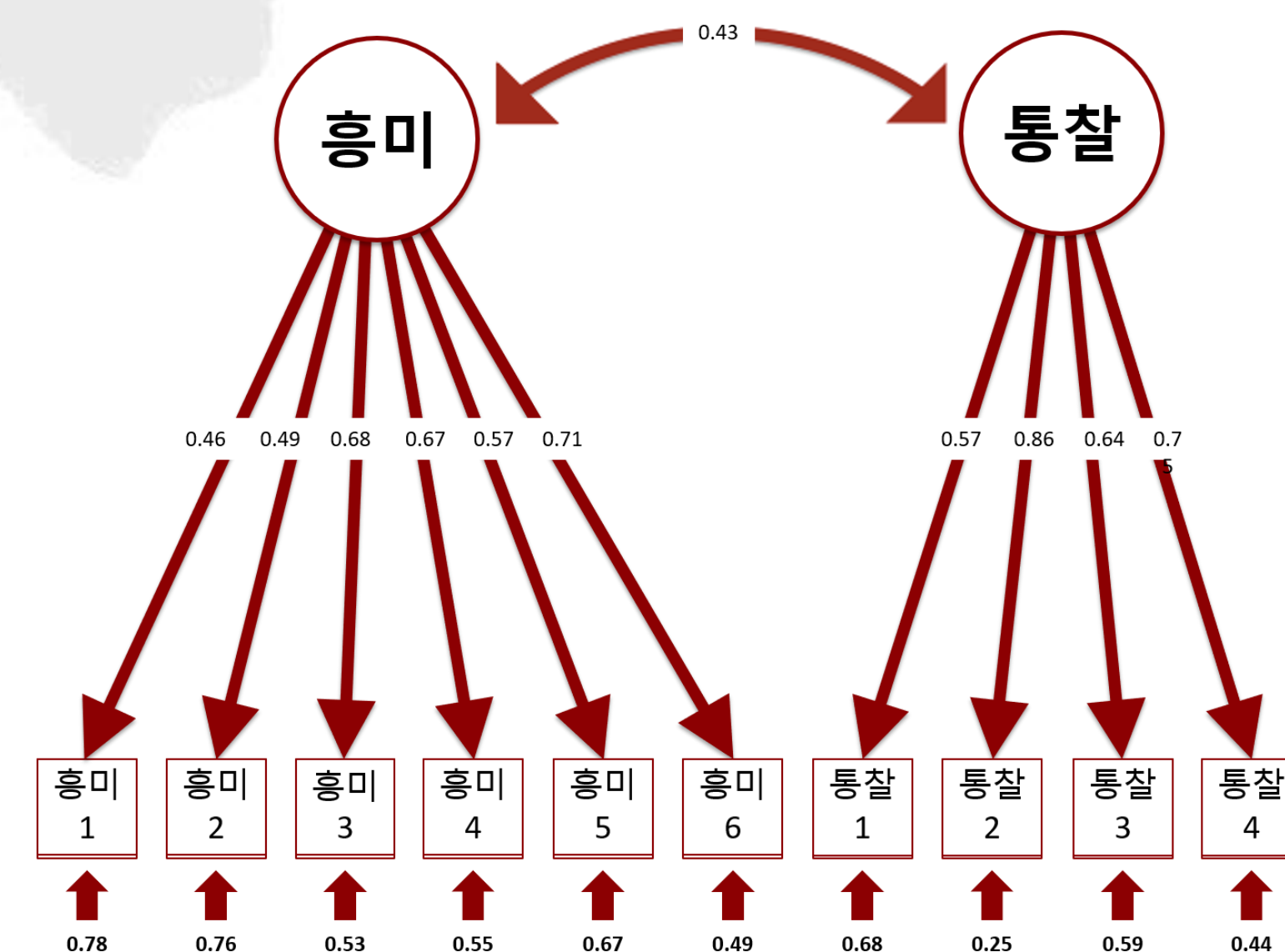
- BIPM의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기 위해 전문 번역가 1인과 이중언어구사자인 임상심리학 석사 1인이 영어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두 가지 번역본을 연구자가 검토한 후 최종 번역본을 또 다른 임상심리학 전공 이중언어구사자가 역 번역 하는 과정을 거쳤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이 낮은 4문항을 제거하였다(3, 4, 7, 10번 문항). 최종적으로 선정된 10문항(흥미: 6문항, 통찰: 4문항)의 신뢰도와 요인 구조를 확인했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K-BIPM이 BIPM과 마찬가지로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했다.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했다.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TMMS와의 상관을 분석했다. 심리적인 통찰력을 측정하는 WSCT(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와의 상관을 분석함으로써 K-BIPM과 행동적인 지표와의 관계를 탐색했다. 심리적 마인드와 심리적 적응 수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척도(K-MHC-SF), 자존감(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우울(CES-D), 지각된 스트레스, 전반적 후회와의 상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통찰	—	.344**	.684***	.336***	.211***	.172**	.338***	.302***	.375***	.433***	-.359***	-.254***	-.261***
2. 흥미		—	.183***	.544***	.125*	.026	.255***	.282***	.370***	.269***	-.145**	-.176**	-.203***
3. 정서인식(TMMS)			—	.120*	.197***	.170**	.293***	.195***	.363***	.444***	-.366***	-.321***	-.272***
4. 정서주의(TMMS)				—	.059	.038	.149**	.177**	.280***	.206***	.019	-.046	.059
5. 정서개선(TMMS)					—	.044	.418***	.349***	.352***	.455***	-.477***	-.360***	-.365***
6. WCST						—	.099	.092	.112*	.130*	-.134*	-.062	-.093
7. 정서적 WB							—	.492***	.653***	.565***	-.616***	-.495***	-.266***
8. 사회적 WB								—	.472***	.472***	-.431***	-.372***	-.232***
9. 심리적 WB									—	.699***	-.557***	-.532***	-.337***
10. 자아존중감										—	-.697***	-.618***	-.425***
11. 우울(CES-D)											—	.748***	.347***
12. 스트레스												—	.318***
13. 후회													—

주. $N = 372$. WCST = Wisconsin Card Sorting Test; 정신건강척도(K-MHC-SF) = 정서적 WB, 사회적 WB, 심리적 WB, WB = Well-Being; 자존감 =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우울 = CES-D; 스트레스 = 지각된 스트레스
* $p < .05$. ** $p < .01$. *** $p < .001$.

- K-BIPM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BIPM은 BIPM과 마찬가지로 흥미, 통찰의 2요인 구조를 가졌으며(RMSEA = 0.08, CFI = 0.92), 각 요인 별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alpha_{\text{흥미}} = .78$, $\alpha_{\text{통찰}} = .79$).
- K-BIPM의 수렴 타당도의 검증 결과 K-BIPM의 두 하위 척도인 흥미와 통찰은 TMMS의 하위척도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 두 하위 척도 모두 정서적 · 심리적 · 사회적 웰빙, 자존감 및 우울, 스트레스, 후회하는 경향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 마지막으로 통찰이 높을수록 심리적인 통찰력의 행동적 평가도구인 WSCT에서 양호한 수행을 나타냈다.



논의

- 연구 결과 K-BIPM은 BIPM과 마찬가지로 흥미와 통찰의 2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K-BIPM은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관련된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K-BIPM은 자기보고식 검사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적인 수행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K-BIPM은 개인의 심리적 마인드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유인물 참고